



지회 운영의 모범답안 강동·송파지회

유통사업으로 '흑자경영' 신화창조

(사)대한제과협회의 주춧돌인 전국의 지회 지부를 소개하는 '지회지부 탐방'. 이번 호에서는 강송유통을 운영하며 베이커리 중간 재료업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강동·송파지회를 찾았다. 회원 업소의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흑자경영의 신화를 창조한 강동·송파지회의 활동을 들여다본다.

글_박소희 기자 · 사진_주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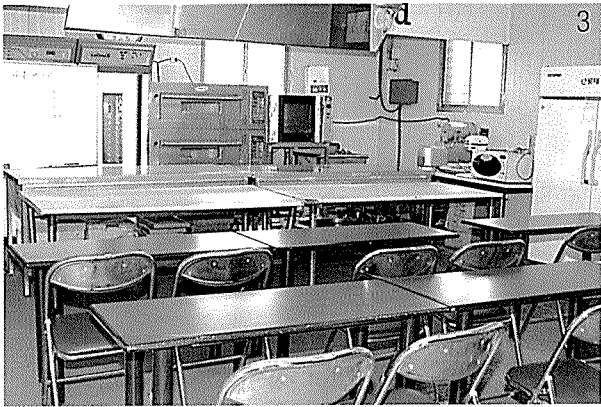
1985년 강남 지회에서 독립한 강동·송파 지회는 독특한 조직을 자랑한다. 강동·송파 지회는 도용후 지회장과 각 구역을 맡아 관리하는 지역장 6~7명, 역대 지회장, 사무국 장으로 구성된다. 여느 지회와 달리 부지회장이 없다.

올해로 결성된지 20년째인 강동·송파지회의 주업무의 목적은 모든 회원 업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도용후 지회장은 "말로만 앞서는 활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어려운 제과업계의 미래가 밝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회원 업소 관리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단합만을 강요하거나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송유통으로 강동·송파지회 신화 창조

전국 지회지부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사업인 유통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강동·송파지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강송유통이다. 회원 업소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한 공동구매 사업을 한층 발전시켜 제과점에서 가장 필요한 재료를 판매한 강송유통은 올해로 설립 7년째를 맞이한 중견 기업이다. 회원 업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재료값이라는 점에 착안한 강동·송파지회는 중간 마진을 줄이기 위



1 힘을 합쳐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강동·송파지회 임원들.
 2 도용후 강동·송파지회장
 3 매달 회원들을 위해 세미나가 열리는 세미나실.
 4 협회 사무와 강송유통을 이끌어가는 숨은 주역들, 사진 왼쪽부터 안정호, 지영민, 최경화, 김용두 씨.

한 방안으로 지회에서 필요한 재료를 직접 구매해 배송·판매를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회원 업소에서 많이 쓰는 재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다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 아예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취급하는 재료의 수도 늘었다.

유통사업을 하는 강동·송파지회는 재료보관을 위해 대형 창고를 개조해 사무실로 사용한다. 창고를 가득 매운 재료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효율적으로 지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송유통은 또한 재료 뿐만 아니라 회원 업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견인차 역할도 한다.

신규 오픈하는 제과점의 컨설팅, 중고기계 매매 등의 상담과 자문 역할을 하는 소위 제과점 관련 토털 컨설팅 업체도 활약한다. 강송유통은 제과업계 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는 요즈음 회원 업소와 지회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일도 함께 의논하는 하나의 공동체

매달 열리는 지회 회의는 지회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여해 작은 사항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행된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프랜차이즈 사업과 차별화 둘 수 있는 사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각 지역의 제과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

회원 업소들의 제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회원을 위한 작은 배려이다. 재료업체 데몬스트레이터나 (사)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실용적이고 새재료를 응용한 제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익 사업을 해나가면서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봉사활동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활동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각종 봉사활동,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업무를 지회에서 대신 도맡는 한편 크리스마스 등 특수절을 앞두고 지회 자체 현수막을 만드는 등 지회의 일거리는 산더미같지만 회원들의 감사 인사에 피곤한 줄 모른다고.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는 지회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용후 지회장과 함께 강동·송파지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박정희 사무국장은 잠시도 쉴 틈이 없 바빠 움직인다.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지회지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강동·송파지회 도용후 지회장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 강송유통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실속 있는 지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2005년 포부를 밝힌다. 알찬 지회 운영으로 각 지회·지부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강동·송파지회의 눈부신 활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